

통 일 운 동 사 에 길 이 빛 나 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아침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한평생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로고와 실험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민족분렬의 아픔을 두고 잠 못 이루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데를 자신의 최대의 본분으로 삼으시었다.

자신께서는 어린시절 38°선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분렬의 장벽을 일시적인것으로 생각하였지 영원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주적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잡고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곤 하시었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었는데 나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하려고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어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로선을 밝혀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력사적로작에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었다.

파란맑고 폭결 많은 통일운동사에 승리의 기치로 휘날리게 된 조국통일3대헌장, 그 정식화는 위대한 수령님

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추호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시려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선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정치실력, 확고한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었다.

2000년 6월의 평양상봉에서 채택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은 겨레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 통일의 리정표이다.

격동적인 6.15통일시대의 나날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하늘같은 덕망으로 남녘의 각당, 각파, 각계의 인사들과 동포들을 허물없이 만나주시고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었다.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성원모두를 통일운동의 주체로 내세워주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자주리념과 애국애족의 뜻에 매혹되어 대자본가, 정치인, 통일인사들을 비롯한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평양으로 찾아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6.15통일시대에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한나산을 비롯한 삼천리 곳곳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열리였으며 분렬의 장벽을 깃부시고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리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깃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장장 수십년간 헤쳐져 살아부조차 알수 없었던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열새안고 혈육의 정을 나누는 감동적인 화폭들이 펼쳐졌고 금강산과 개성관광길이 열려 근 200만명에 달하는 남녘동포들이 민족의 명승지들을 찾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7년 10월에는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력사적인 10.4선언을 채택발표하도록 하시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그이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의지, 뛰어난 통일방안은 공화국창건 60돛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의 구절구절에도 어려여있다. 로작에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통성변영의 길을 열어 나가자면 자주통일의 리정표

을 이루는 지성어린 축원을 받으시며 단 한순간이나마 휴식하지아 할 이날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저녁늦어서 어느 한 단위의 일군들을 찾아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바로 조국통일이라고,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제일 심려하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걱정이 많으시어 생신날 밤마저도 쉬지 못하시고 자기들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앞에서 일군들은 무거워지는 마음을 어쩔수가

없었다. 만인이 울리는 지성어린 축원을 받으시며 단 한순간이나마 휴식하지아 할 이날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저녁늦어서 어느 한 단위의 일군들을 찾아가시었다.

본사기자 김철민

생신날 밤에도

연제나 통일을 생각하며

《통일각》

어버이수령님과 토론하시어 《통일각》이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였던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회고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통일각〉이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통일을 념원하는 뜻에서 좋고 통일된 다음에는 통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참으로 《통일각》은 그 이름으로 보나 건물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멋쟁이집이었다.

《통일각》이 준공된 후 이곳에서는 많은 북남회담들이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통일유훈을 현실로 꽃피우시려고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오면서 대대손손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지도 근 70년을 헤아리고있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필성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삼천리강토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조국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해 낮과 밤을 이으시며 펼쳐시는 그이의 사색과 로고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도 뜨겁게 어려여있다.

다 아는바이지만 판문점은 우리 겨레의 분렬의 한이 짙게 서려있는 곳이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대치하고있는 첨예하고 긴장한 지역이다. 바로 이런 판문점을 2012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시어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은 백두산위인들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으신 선군령장께서 조국통일의 진두에 변함없이 서계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파시한 력사적사변이었다.

3월의 그날 판문점을 찾으

시고 조국통일의 사명감과 의지를 더욱 굳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돌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과 여러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결연한 통일의지를 온 세상에 천명하시었다.

오랜 세월 강토에서 단 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

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렬은 곧 매국이라고 하시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말씀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대한 시대적, 민족사적사명감을 지니신 령도자의 숭고한 것을 온 세상에 파시한 력사적사변이었다.

2012년 12월 공화국의 인

생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을 밝혀주시었다.

이에 따라 공화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제안을 내놓고 이어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였으며 이것은 온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민족분렬의 장본인인 외세가 아무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도 화해와 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우리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멈춰세울수는 없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어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은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며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

아말것이다.

리 어 금

북 남 고 위 급 점 측 이 진 행 되 었 다

북남고위급점측이 12일과 14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점측에는 북측에서 원동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표단인, 남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점측에서 쌍방은 북남관계를 개선하

여 민족적단합과 평화변영,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 나갈 의지를 확인하고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 동 보 도 문

북과 남은 2014년 2월 12일과 14일 판문점에서 고위급점측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북과 남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호상리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호상 편리한 날자에 고위급점측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4년 2월 14일

남에서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서 놓고 힘을 합쳐야 하며 조국통일운동의 대하에 용약 뛰어들어야 한다.

통일은 곧 애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거족적으로 벌려나갈 때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